

# 영유아 무용교육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무용교육표준 분석\* : SLTDA와 NCAS를 중심으로

홍애령\*\*·이소미\*\*\* 상명대학교

이 연구는 영유아 무용교육표준의 영역, 내용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형 영유아 무용교육 가이드라인의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파악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국립무용교육기구(NDEO)가 고시하고 있는 2005 무용교육표준(2005 Standards for Learning and Teaching Dance in the Arts, SLTDA)과 2014 국가핵심예술표준(2014 National Core Arts Standards in Dance, NCAS)에 포함된 영유아 무용교육(Dance in Early Childhood, Pre K, Kindergarten)의 영역 및 내용을 분석하고 유아무용교육 전문가 5인과의 FGI를 실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두개의 표준은 공통적으로 창작(Creating), 공연(Performing), 반응(Responding), 연계(Connecting)의 4가지 과정으로 구성되었고, 각 연령대에서 학생들의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수준과 능력을 고려하여 발달적으로 적합한 무용교육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교육내용은 모든 무용 장르와 스타일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시하고, 다양한 감각적 자극(음악, 소리, 시각, 촉각)에 움직임으로 반응하기, 기초 이동 움직임, 비이동 움직임 탐구와 하나 이상의 무용 요소로 변화시키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둘째,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시사점으로 영유아 무용교육의 발달단계별 세분화, 다양화 및 연계성의 고려, 기존 교육표준에 대한 적합성 검토, 가이드라인 수요자 대상의 교보재 개발, 안전하고 다양한 수업 환경의 고려가 제안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할 때 영유아 시기의 발달단계별 특성을 상세히 목록화 하고 이를 근거로 무용교수학습과정에서 핵심적인 목표, 내용과 방법에 대해 구체화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또한 누리과정 등 국내 교육체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라 움직임과 놀이를 숙지하고 무용을 지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제공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영유아, 무용교육, 교육표준, SLTDA, NCAS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 생애주기의 근간이 되는 영유아 시기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발달과 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기간이다. 그렇기에 영유아기의 교육은 한 인간의 삶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다른 생애주기보다 이 시기 학습자들의 특성을 더욱 민감하게 관찰해야 하는 이유는 영유아기의 학습자들이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발달단계에 있으며, 언어 사용에 익숙하지 않고 움직임과 몸짓을 통해 의사를 표현하기 때문이다(Ailwood, 2015). 그러므로 영유아에 대한 교육자의 면밀한 관찰과 교육목적에 따른 체계적인 수업계획을 바탕으로 학습자 중심의 교수설계가 더욱 요구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영유아 교육에서는 놀이를 중심으로 한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8104241, NRF-2020S1A5A8045870)

\*\* 상명대학교 글로벌문화예술교육연구소 전임연구교수, dphong@smu.ac.kr

\*\*\*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과 부교수, leessom@smu.ac.kr, 교신저자

비언어적 의사소통, 움직임, 노래와 율동 등 다양한 신체표현활동을 기반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움직임과 다양한 표현을 매개로 하는 무용교육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무용교육학의 관점에서 더욱 체계적인 교육지침과 교육과정 등이 제안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김지영, 홍애령, 2019a). 그러나 기존의 영유아 무용교육과 관련된 연구에서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 교육표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는 매우 드물었다. 최근 댄스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LMA 무용교육 프로그램, 극놀이를 활용한 프로그램들이 연구된 바 있으나(정재임, 2019; 채규남, 2020), 상대적으로 다른 교육대상의 무용교육연구에 비해 연구자가 고안하거나 특정한 이론적 준거에 따라 설계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유아 무용교육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교육계 전반에서 영유아를 공교육의 학습자, 교육대상으로 포함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2018년 1월 발표된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은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강조하면서 문화예술교육의 첫 교육대상으로 영유아를 표기하고 있다. 기존의 예술교육에서 조기교육을 통해 예술성, 영재성을 발견하고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면, 통합예술 관점에서는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교육 수단으로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인 예술교육, 무용교육이 비중 있게 적용되었다(윤혜선, 김예진, 2016). 연장선상에서 문화예술교육 관점의 영유아 교육은 학습자의 인지적, 정서적, 감성적 측면을 고려하고, 미적 체험을 통해 감성과 인성을 고르게 발달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2019년 7월 유아·놀이중심의 '2019 개정 누리과정'(이하 개정 누리과정)이 발표되어 만5세부터 고등학교 시기까지가 공교육의 범주에 포함되었다(교육부 보도자료,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개별 유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자유놀이를 권장하고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는 영유아 교육여건이나 유치원, 어린이집의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체계적인 예술경험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최경근, 이소미, 권재운, 2020). 개정 누리과정에서 영유아 무용교육에 해당되는 영역은 신체운동·건강 영역이다. 유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신체인식, 움직임 조절, 이동운동, 제자리운동, 도구운동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예술경험 영역의 아름다움 찾아보기,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예술 감상하기 등에서 자유로운 신체 움직임을 표현하거나 리듬을 만들고 감상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019). 이에 따라 영유아를 위한 누리과정의 신체운동·건강 영역은 초·중등학교에서 행해지는 체육과 표현 영역을 고려하여 연계,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홍애령, 2019a).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전체적인 교육과정이나 영유아의 특정 영역에 대한 고려 없이 콘텐츠 중심의 교육이 행해지고 있다. 영유아를 위한 무용교육에서 학습자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교사가 제시하는 학습모형이나 시범에 의한 동작학습, 창의적 움직임이 지능 발달과도 연결된다는 사실에 미루어 본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Wulandari, Agustin, Narawati & Masunah, 2019).

국내·외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무용교육은 그룹별 움직임 학습을 통해 창의성,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과정과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알려져 있다(이윤구, 이소미, 2020; Rakimahwati, 2014). 뿐만 아니라 인지, 운동능력 및 주의력 향상에도 기여한다(임동호, 이소미, 2018; Green Gilbert & Smith, 1992; Faber, 2017). 현재까지 국내 영유아 무용교육 분야의 연구는 유치원 등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현황, 무용에 대한 학부모 및 교사의 인식 조사 등이 진행되었으며, 교육환경 분석이나 내용에 대한 이론적 근거보다는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가 다수였다(정주희, 윤혜선, 김예진, 2016; 홍애령, 2019b). '유아무용'이라 불리는 수업들은 주로 유치원에서 배우는 율동, 발레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었고, 유치원에서 유아들을 지도하는 강사는 무용전공 졸업생들이 다수이지만, 유아관련 교육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가 56.6%, 기관에서 제시하는 수업계획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51.4%로 나타났다(윤혜선, 김예진, 2018). 비록 무용전공의 교육

자가 지도하지만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할 만한 재교육을 받지 않은 채 현장에서 지도하는 교육자가 다수인 셈이다. 결국 가장 어린 나이에 학습을 시작하는 영유아들이 배우는 무용수업은 체계적이지 않거나 지도자의 역량과 전문성에 따라 수업의 질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홍애령, 2017). 이에 영유아 무용교육을 어떠한 기준에 근거하여 가르칠 것인지, 교수설계의 측면에서 참고할만한 기초자료가 요구된다. 더욱이 한국의 교육 상황을 고려하여 누리과정의 목표와 내용 영역을 준수하되 세부 내용에 무용을 포함시키면서, 유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무용 장르에 편중되지 않도록 움직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홍애령, 김종희, 2020; Green Gilbert & Smith, 1992).

이에 이 연구는 기존의 영유아 무용교육표준의 교육과정, 영역, 내용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형 영유아 무용교육 가이드라인의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파악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국립무용교육기구(NDEO)가 고시하고 있는 2005 무용교육표준(2005 Standards for Learning and Teaching Dance in the Arts, SLTDA)과 2014 국가핵심예술표준(2014 National Core Arts Standards in Dance, NCAS)에 포함된 영유아 무용교육(Dance in Early Childhood, Pre K, Kindergarten)의 지침 내용을 분석하고 유아무용교육 전문가 5인과의 FGI를 실행하였다.

## 2. 연구문제

영유아 무용교육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무용교육표준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이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무용교육표준이라 볼 수 있는 NDEO의 SLTDA, NCAS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영유아 무용교육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시사점은 무엇인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이 연구는 영유아 무용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지침이나 교육표준이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적 영향력을 지닌 무용교육기관의 교육표준을 분석해봄으로써, 향후 누리과정과 무용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영유아 무용교육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국제무용교육기구인 미국 NDEO의 영유아 무용교육표준을 중심으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진행하였다. 질적 연구의 일환으로 문서자료를 연구자의 관점에서 선정 수집하고 자료의 분석틀을 연구자간의 논의를 통해 고안함으로써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 2. 내용분석 대상 및 절차

영유아 무용교육표준 분석에 활용된 문서자료는 NDEO 공식사이트와 교육과정 자료실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2005 무용교육표준(2005 Standards for Learning and Teaching Dance in the Arts, SLTDA)과 2014 국가핵심예술표준(2014 National Core Arts Standards in Dance, NCAS)에 포함된 영유아 무용교육(Dance in Early Childhood, Pre K, Kindergarten)의 지침이다.

문헌의 내용분석을 위한 절차로 먼저 2020년 9월부터 NDEO 공식사이트와 교육과정 자료실을 통해 자료

를 수집하여 영유아 무용교육에 해당되는 Dance in Early Childhood, Pre K, Kindergarten의 문서를 수집, 1차 번역과 정리를 진행하였다. 전문 번역 업체의 영문 교정, 해외 대학원 학위과정을 졸업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오역과 전공 분야 용어와의 일치성을 고려하여 2차 자료를 구성하였다. 2020년 10월 한국체육학회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1차적으로 분석된 내용을 학술발표를 통해 공유하였다. 이를 수정, 보완하여 2021년 1월부터 학술지 논문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수정 및 보완을 시행하였다.

### 3. 내용타당도 확보를 위한 전문가 자문 FGI

영유아를 위한 국제적인 무용교육표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내의 무용교육은 사설 교육기관과 학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방과후 활동의 형태로 활성화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내 상황에 적합한 영유아 무용교육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그 기초가 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내용분석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 FGI를 병행하였다. 전문가 자문은 유아교육 및 무용지도에 최소 3년, 최장 4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전문가 자문위원은 영유아 무용교육 '기획 및 경영군'에 해당하는 A, B, C, '교육 강사군'에 해당하는 D, E로 구분하였다.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1시간 내외의 1차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Zoom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2시간 내외의 2차 비대면 면담을 시행하였다. 개별적으로 개진한 의견과 시사점을 집단 면담시 정리하고 추가 의견을 제안 받았다.

표 1. 영유아 무용교육 전문가 자문 구성

전문가	구분	성별	연령	주요 경력 및 자문 의견
A	유치원 원장	여	60대	유아교육 경력 40년, 영유아 무용교육의 목표와 내용
B	어린이집 원장	여	50대	유아교육 경력 34년, 영유아 무용교육의 목표와 내용
C	유아무용지도자 양성기관 대표	여	40대	유아교육 경력 11년, 무용교육표준 내용의 시사점
D	방과후 강사	여	20대	유아교육 경력 3년, 유리드믹스, 국악, 무용교육 내용 공유
E	유아무용 강사	여	30대	유아교육 경력 8년, 유아발레, 리듬체조 교육 내용 공유

전문가 FGI의 주요 쟁점은 본격적인 공교육으로서 개정 누리과정이 적용된 현 시점에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과정에 필수적으로 포함된 신체운동·건강 영역에서 무용교육의 가능성, 예술적인 신체표현을 지도하기 위한 영유아 무용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이였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 유아무용지도자 양성기관의 대표로 구성된 영유아 무용교육 '기획 및 경영군'의 전문가에게는 주로 영유아 무용교육의 목표, 내용, 시사점에 대한 의견에 초점을 두었으며, 방과후 무용 수업 강사, 유아무용 강사로 구성된 '교육 강사군'의 전문가에게는 본인의 지도경험에 대한 공유와 사례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 Ⅲ. NDEO의 영유아 무용교육표준

### 1. 미국의 국립무용교육기구(NDEO)

미국의 국립무용교육기구(National Dance Education Organization, 이하 NDEO)는 대표적인 무용교육 단체로서 현장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K-12, 고등교육기관, 사립 무용학교 등 다양한 영역의 교강사를 양성, 무용교육에 종사하는 교강사들을 지원하고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이 단체의 활동 중 가장 주목 받은 것은 2005년 무용교수학습표준(2005 Standards for Learning and Teaching Dance in the Arts), 2014년

국가핵심예술교육표준 내에 무용교육표준(National Core Arts Standards in Dance)을 제시한 것이다.

NDEO는 1998년 4월 워싱턴 DC 외곽, 미국 예술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국립 예술협회 및 교육협회, 연방 기관과 인접한 곳에 사무실을 설립하였다(NDEO 홈페이지, 2021.01.30.). 이후 미국의 학교, 무용 스튜디오 및 대학에서 양질의 무용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사안을 결정, 해결하기 위해 입법 기관과 지속적인 교류를 시작하였다. 특히 무용 분야의 실질적인 정부 보조금, 파트너십 구축, 교육 및 예술을 위한 학생 및 교사 교육표준의 발표, 국가수준의 무용교육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개발하여 인정받고 있고 있다.

이 과정에서 NDEO는 미국 내 수십 개의 주(州)에서 무용관련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돕고, 지역 수준의 무용교육을 육성하기 위해 주 계열사를 설립했다. 또한 Journal of Dance Education(JODE)과 Dance Education in Practice(DEiP) 등 2개의 무용교육 저널을 발행하고, 무용교육과 관련된 문학과 연구를 찾을 수 있는 검색 메뉴(Dance Education Literature and Research descriptive index, DELRdi)를 제공하고 있어 사실상 무용교육과 관련하여 협회와 학회의 역할을 병행한다고 볼 수 있다.

## 2. 2005 무용교육표준(SLTDA)의 영유아 무용

NDEO가 2005년 발표한 무용교육표준(2005 Standards for Learning and Teaching Dance in the Arts, 이하 SLTDA)은 생후부터 고등학생까지 연령의 학생들에게 무용을 어떠한 내용과 방법으로 지도해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다. 이중 영유아기는 'Dance in Early Childhood'로 구분되어 있으며, 학부모, 돌봄교사, 무용교사 및 관리자가 생후(Infant)부터 5세까지의 학습자에 대해 알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영유아기 무용수업을 통한 발달과정은 예술적 학습뿐만 아니라 신경학적 발달, 운동 발달, 사회 발달, 인지 발달에 기초하여 설계되었다.

SLTDA 영유아 무용교육표준은 연령에 따라 개략적으로 무용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진행형 차트에 배열하여 수업 목적과 평가를 연관지어 제시하고 있다(NDEO, 2005). 창작(Creating), 공연(Performing), 반응(Responding) 및 연계(Connecting)의 예술적 과정을 고려하여 조직되었으며 각 연령대 학생들의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요구와 능력을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내용 표준은 각 연령 수준에 대해 일정하게 유지되며, 성과 표준은 각 단계마다 더 높은 성숙도를 요구한다.

그러나 교육표준 상에 제시된 내용은 우리나라의 누리과정이나 초등학교 표현 영역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창작, 공연, 반응, 연계의 4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미 한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초등학교 무용, 혹은 무용을 처음 접한 비전공자에게 시행하는 움직임 교육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예를 들어 비이동 동작, 이동 동작 등을 창작, 공연, 감상하는 활동이 주되게 행해지고 다양한 음악과 박자에 맞추어 울동처럼 지도한다는 점은 일반적인 수준에서 알고 있는 무용수업의 내용과 별 차이가 없었다.

## 3. 2014 국가핵심예술표준(NCAS)의 영유아 무용

NDEO의 핵심인사들이 개발한 2014년 국가핵심예술표준(2014 National Core Arts Standards in Dance, NCAS)은 국가수준에서 핵심 예술교육표준을 제정한 것이다. 이 표준에는 무용(Dance)이 독자적인 교과 영역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SLTDA의 내용을 기반으로 다양한 자극과 교수학습방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표준에서 영유아기는 'Pre K', 'Kindergarten'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첫째, 창작(Creating) 영역에서는 탐구(Explore), 계획(Plan), 수정(Revise)의 3단계를 제시하여 영아와 유아가 다양한 감각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자유롭게 춤을 주면서 신체의 각 부위와 위치를 익힐 수 있

도록 한다. 특히 춤만 추는 것이 아니라 음향과 촉각 자료를 제시하고 텍스트, 기호, 그림 등 다양한 시각적 자극 매체를 활용하도록 한다.

표 2. NCAS의 창작(Creating) 영역 영유아 무용교육 내용

단계	영아(Pre K)	유아(Kindergarten)
탐구(Explore)	a. 다양한 자극(예: 음악/소리, 시각, 촉각)에 움직임으로 반응한다. b. 몇 가지 비이동 동작, 이동 동작을 다양하게 탐색한다.	a. 다양한 자극(예: 음악/소리, 텍스트, 물체, 이미지, 기호, 관찰된 춤동작)에 움직임으로 반응한다. b. 춤의 요소 중 하나 이상을 변경하여 기본 비이동 동작, 이동 동작의 다양한 방법을 탐색한다.
계획(Plan)	a. 즉흥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시작하고 멈추는 춤을 춘다. b. 혼자 혹은 친구와 함께 움직임에 참여한다.	a. 시작, 중간 및 끝이 있는 춤을 춘다. b. 혼자 또는 친구와 함께 즉흥적으로 아이디어, 느낌, 이미지를 표현한다.
수정(Revise)	a. 제시된 즉흥 동작을 통해 움직임을 변화시킨다. b. 신체 부위를 인식하고 몸의 형태와 위치를 그림으로 그려본다.	a. 제시된 즉흥 동작을 변화시키기 위한 동작을 만들어본다. b. 그림을 그리거나 기호를 사용하여 춤 동작을 묘사한다.

둘째, 공연(Performing) 영역에서는 표현(Express), 참여(Embodiment), 발표(Present)의 3단계를 제시하여 다양한 공간 속에서 방향 감각을 익히고 움직임의 다양한 특성을 시험해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유아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춤이나 무용 동작을 다른 사람 앞에서 보여주는 활동이 아닌, 실험적인 도전을 하는 셈이다. 소리 자극, 템포, 몸의 형태, 지정된 공간과 자유로운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 3. NCAS의 공연(Performing) 영역 영유아 무용교육 내용

단계	영아(Pre K)	유아(Kindergarten)
표현(Express)	a. 일반적인 공간(전면, 후면, 측면, 위, 아래, 회전)에서 몸을 움직이고 공간 안에서 특정 지점으로 돌아가기 위해 방향을 찾아본다. b. 춤의 속도(빠르게, 느리게)를 구별한다. 각기 다른 템포에서 다양한 리듬으로 이동한다. c. 반대되는 움직임 특성(예: 느슨한/긴장한, 가벼운/무거운, 강한/부드러운)을 표현하며 이동한다.	a. 선(직선, 곡선), 크기(크게, 작게) 등을 표현하고 신체의 형태를 변화시킨다. 다른 친구들과 함께 원을 만들고 변형시켜본다. b. 소리 자극, 템포와 일치하는 움직임, 대비되는 움직임을 해본다. c. 움직임의 특성(예: 느림, 부드러움/웨이브)을 구분하고 움직임에 적용한다.
참여(Embodiment)	a. 기본 이동 동작과 비이동 동작, 공간에 따른 움직임을 해본다. b. 일반 공간에서 이동 후 개인 공간을 유지하면서 특정한 시점에 시작하고 멈춘다. c. 신체 부위를 인식하면서 이동하고 교사의 요청에 따라 동작을 반복한다.	a. 같은 방향, 다른 방향으로 기본 이동 동작과 비이동 동작, 공간에 따른 몸의 형태, 움직임을 해본다. b. 일반 공간에서 안전하게 이동하고 개인 공간을 유지하면서 그룹을 구성하고, 창의적인 움직임을 하면서 특정한 시점에 시작하고 멈춘다. c. 신체 부위끼리 연관되도록 움직이고 교사의 요청에 따라 동작을 반복한다.
발표(Present)	a. 지정된 공간에서 친구들과 춤을 춘다. b. 춤의 일부로 간단한 소품을 사용한다.	a. 지정된 공간에서 친구들과 춤을 춘다. b. 춤의 일부로 사용할 소품을 선택한다.

셋째, 반응(Responding) 영역에서는 분석(Analyze), 해석(Interpret), 비평(Critique)의 3단계를 제시하여 움직임과 춤을 감상하는 활동을 하면서 관찰하는 태도를 습득하도록 한다. 영유아의 관점에서 호기심을 가질 만한 움직임과 춤을 보여주고 재미있는 동작이 무엇인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며, 이를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한다.

표 4. NCAS의 반응(Responding) 영역 영유아 무용교육 내용

단계	영아(Pre K)	유아(Kindergarten)
분석(Analyze)	a. 춤 동작을 반복하고 구분한다. b. 관찰되거나 수행된 춤 동작을 시연한다.	a. 춤에서 반복되는 동작을 찾는다. b. 관찰되거나 수행된 춤 동작을 시연, 설명한다.
해석(Interpret)	a. 움직임에 관찰하고 감상을 공유한다.	a. 동작을 관찰하고 간단한 무용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비평(Critique)	a. 춤에서 재미있는 동작을 찾고, 따라 해보고 왜 재미있는지 설명한다.	a. 춤에서 눈에 띄는 동작을 찾고, 따라 해보고 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설명한다.

넷째, 연계(Connecting) 영역에서는 종합(Synthesize), 관계(Relate)의 2단계를 제시하여 춤의 감상과 학습내용에 대한 설명, 질문과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른 예술 작품에 나타난 인물의 몸동작이나 움직임을 설명하도록 하고 수업 외에서도 춤을 추고 춤에 대해 말할 수 있게 유도한다.

표 5. NCAS의 연계(Connecting) 영역 영유아 무용교육 내용

단계	영아(Pre K)	유아(Kindergarten)
종합(Synthesize)	a. 춤 동작을 감상하고 표현된 감정을 인식한다. b. 무용 작품을 관찰한다. 움직임을 파악하고 모방 해보고 질문한다.	a. 춤 동작을 감상하고 즉흥적으로 만들어 보거나, 춤을 출 때 경험하는 감정을 인식하여 이름을 붙이고 자신의 경험과 연관시킨다. b. 시각예술 작품을 관찰한다. 그림을 묘사하고 움직임을 통해 예술작품에서 관심 있는 것을 표현하고, 예술작품에 대한 토론, 질문을 한다.
관계(Relate)	a. 집이나 다른 곳에서 경험한 춤 동작을 보여준다.	a. 자신이 관찰하거나 직접 취본 춤 동작을 설명하거나 시연한다.

#### 4. 종합분석

이 연구에서 주된 분석 대상으로 제시한 SLTDA와 NCAS, 두 개의 무용교육표준은 공통적으로 창작(Creating), 공연(Performing), 반응(Responding), 연계(Connecting)의 4가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연령대에서 학생들의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수준과 능력을 고려하여 발달적으로 적합한 무용교육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모든 무용 장르와 스타일에 적용 가능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는 NDEO의 주요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무용교육표준을 제시하고 각 주별 세부 교육과정에 대한 지침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기에 교육표준으로서 지속성과 연계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움직임을 탐구하고 감상하는 과정에서 교육학 이론으로서 자극-반응 이론, 인지발달 이론, 경험중심 학습, 구성주의의 관점이 포함되어 있었다.

차별적인 특징이 있다면, 세부적으로 2005 무용교육표준(SLTDA)에서는 공연, 창작, 반응의 과정에서 출생부터 5세까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연령별 발달단계에 따라 점진적인 루브릭(Rubric)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경 발달, 운동 발달, 사회 발달, 인지 발달 및 예술적 학습을 우선시하고 있다. 2014 국가핵심예술표준(NCAS)은 무용 학습에 대한 창의적인 접근 방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다양한 문화, 스타일, 장르에 관계없이 무용 학습에 대한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학습과정에서의 폭 넓은 무용 경험의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영유아 무용교육표준에서는 다양한 감각적 자극(음악, 소리, 시각, 촉각)에 움직임으로 반응하기, 기초적인 이동 움직임, 비이동 움직임 탐구와 하나 이상의 무용 요소로 변화시키기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전체적인 K-12 무용교육과정과 더불어 영유아(Pre K, Kindergarten)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어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높이고 공통의 교육목표 내에서 단계와 내용을 심화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의 무용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간주되지 못하고 전국 단위, 지역 단위 교육과정이 공개되거나 표준화되지 못한 상황과 매우 대조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홍애령, 김종희, 2020).

#### IV. 영유아 무용교육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시사점

이 연구에서 살펴본 SLTDA와 NCAS을 기준으로 누리과정 및 우리나라의 유아무용교육의 현황을 고려하여 영유아 무용교육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유아 무용교육 전문가 집단의 서면 검토와 Zoom을 활용한 FGI를 실시한 결과는 <표 6>와 같다.

표 6. FGI를 통해 도출된 영유아 무용교육 가이드라인 개발의 시사점

구분	시사점	전문가	세부 내용
1	영유아 무용교육의 발달단계별 세분화, 다양화, 연계성 고려	A, D	어린이집, 유치원 학급구분, 개월 수, 성별,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고려한 무용수업의 목표, 내용, 방법
2	기존 교육표준에 대한 적합성 검토	B, C	한국 교육상황, 누리과정, 교육과정에 적합한 무용 프로그램, 율동과 춤놀이 중심의 수업 개발
3	가이드라인 수요자 대상의 교보재 개발	E, C	영유아 무용교육 브랜드로서 교육자료의 멀티미디어화, 즉각적인 현장 적용이 가능한 음악, 동작, 소품의 동시 개발 요구
4	안전하고 다양한 수업 환경의 고려	B, E	코로나19 등 방역지침 준수, 숲체험 등 야외활동과 병행된 무용수업 등 다양한 환경적 고려 필요

첫째, 영유아 무용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은 발달단계 특성을 고려하여 36개월 이하, 만3세 이하, 만3세, 만4세, 만5세 등으로 세분화시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정 무용 양식을 기초 단계부터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움직임을 창의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국내에서 영유아 무용교육 프로그램이 특정 양식을 중심으로 연구, 개발되고 있지만 창의성이나 감성지능, 정서지능을 위한 즉흥이나 창의적인 움직임 수업이 요청되는 것이다(강소연, 2019)

어린 아이들은 개월 수에 따라 발달 수준이 정말 달라요. 또 낮가림이 심하거나 시끄러운 음악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 유아 이름 붙이기보다는 개월 수를 기준으로 세분화시켜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전문가 A)

여자 친구들은 발레를 좋아해요. 그런데 더 어리거나 남자 친구들은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 자체를 좋아하고 정해진 대로 따라하도록 하는 게 잘 안되거든요. 여기 표준에 나온 것처럼 모방이나 즉흥 같은 것을 어떻게 시도할지. 무엇을 보여주고 수업하는지가 나오면 좋겠어요. (전문가 D)

둘째, 영유아 무용교육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 표준에서 제시한 단계의 적합성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NCAS의 창작(Creating) 영역에서는 탐구(Explore), 계획(Plan), 수정(Revise)의 3단계, 공연(Performing) 영역에서는 표현(Express), 참여(Embody), 발표(Present)의 3단계, 반응(Responding) 영역에서는 분석(Analyze), 해석(Interpret), 비평(Critique)의 3단계, 연계(Connecting) 영역에서는 종합(Synthesize), 관계(Relate)의 2단계가 제시되어 있는데,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러한 영역 구분과 단계가 영유아에게 다소 모호하고 유치원 교사나 강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자세하고 구체적이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 중에서 신체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보시는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동요에 어떤 동작, 순서 이렇게 있으면 더 잘 가르칠 수 있죠. 유리드믹스나 창의음악 수업에서도 굉장히 디테일한 교안을 가지고 오세요. (전문가 B)



셋째, 영유아 무용교육 가이드라인의 주요 독자를 고려하여 교보재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사설 학원의 무용교육인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인지를 고려하여 유치원 교사, 방과후 강사, 특별활동 강사 등 다양한 지도자를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수업의 회차를 구분하고 음악과 동작,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다면 더욱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제가 몇 개 회사와 일을 해봤는데 그때마다 요구하는 게 달랐어요. 교안을 주고 소도구도 제공해주는 데가 있냐하면 어떤 데는 직접 다 만들어야 하고, 요즘은 소독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신경 쓸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솔직히 아이들 즐겁게 해주는 데에 목적을 둔 적도 많아요. (전문가 E)

저희가 사업을 기획하고 오랜 시간 유지하면서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개발팀이 있고 기획팀이 있기에 가능해요. 수업을 몇 번하는지, 어떤 음악에 무슨 동작을 하는지 알려줘야 수업의 질이 관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학부모님들도 만족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남은 것은 선생님 개인의 능력치, 외모, 보이는 것들뿐이죠. (전문가 C)

넷째, 유아교육의 타 분야를 참조하여 안전하고 다양한 수업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의 집단감염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 향후에도 유사한 방역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대면 수업 환경, 최소한의 접촉, 야외 공간을 활용한 무용 수업에 대한 프로그램도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야외 숲체험을 테마로 하는 어린이집들이 인기가 좋아요. 생태체험, 동물농장 체험중심 활동을 학부모들이 선호하는데 무용수업도 그런 활동 속에 같이 할 수 있겠다 하면 참신할 것 같고요, 날씨 좋을 때 자연을 느끼면서 더 잘할 수 있겠지요. (전문가 B)

(코로나19 때문에) 수업이 줄었어요. 이런 일이 또 안생기란 법 없죠. 유아발레, 무용 이런 수업은 직격탄이고 그나마 정적인 미술이나 노래 수업을 괜찮죠. 무용도 충분히 안전하게 소독하고 진행할 수 있는데 인식이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갑자기 바깥에서 뭘 할 수도 없고요. (전문가 E)

타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생태 유아교육의 개념을 사용하여 실외, 야외에서 다양한 숲 체험과 자연물을 활용한 놀이를 실천함으로써 유아가 자연 생태계 안에서 생명의 가치를 느끼고, 생태적 감수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다(정영님, 2007).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영유아 교육환경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 환경, 최소한의 접촉, 야외 공간을 활용한 무용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과 개발을 시도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상의 전문가들이 지적한 영유아 무용교육 가이드라인의 시사점을 통해 교육대상인 영유아(학습자)의 특성 파악, 수업내용의 구체화와 적합성 평가, 주요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한 교보재 자료의 개발, 타 분야 및 환경변화를 고려한 프로그램 등이 요청되었다. 또한 누리과정이 공교육의 현장에 포함되면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의해 양분되어 진행되어온 영유아 교육이 통합되고 각 교육의 내용이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수준과 방법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영유아 무용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이처럼 무용생태계를 고려하여 교육의 영역을 확대하고 학습자와 사회 요구에 부응하여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요청된다(김지영, 홍애령, 2019b; 홍애령, 2020).

##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영유아 무용교육표준의 영역, 내용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형 영유아 무용교육 가이드라인의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파악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국립무용교육기구(NDEO)가 고시하고 있는 2005 무용교육표준(2005 Standards for Learning and Teaching Dance in the Arts, SLTDA)과 2014 국가핵심예술표준(2014 National Core Arts Standards in Dance, NCAS)에 포함된 영유아 무용교육(Dance in Early Childhood, Pre K, Kindergarten)의 영역 및 내용을 분석하고 유아무용교육 전문가 5인과의 FGI를 실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두개의 표준은 공통적으로 창작(Creating), 공연(Performing), 반응(Responding), 연계(Connecting)의 4가지 과정으로 구성되었고, 각 연령대에서 학생들의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수준과 능력을 고려하여 발달적으로 적합한 무용교육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교육내용은 모든 무용 장르와 스타일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시하고, 다양한 감각적 자극(음악, 소리, 시각, 촉각)에 움직임으로 반응하기, 기초 이동 움직임, 비이동 움직임 탐구와 하나 이상의 무용 요소로 변화시키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NDEO의 주요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무용교육표준을 제시하고 각 주별 세부 교육과정에 대한 지침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기에 교육표준으로서의 지속성과 연계성을 갖고 있었다. 둘째,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시사점으로 영유아 무용교육의 발달단계별 세분화, 다양화 및 연계성의 고려, 기존 교육표준에 대한 적합성 검토, 가이드라인 수요자 대상의 교보재 개발, 안전하고 다양한 수업 환경의 고려가 제안되었다.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영유아 무용교육에서도 발달적으로 적합한 교육실제(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 DAP)의 개념을 적용해야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DAP는 유아의 발달 및 학습의 특성에 근거를 두고 유아가 가진 흥미와 능력, 학습방법, 발달 단계상의 개인차를 인정하여 그들의 발달적 욕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과제를 선택하고 능동적으로 주변 환경을 탐색하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교육방법이다(이정미, 2007; Gestwick, 1999). 이에 따라 영유아 시기의 발달단계별 특성을 상세히 목록화 하고 이를 근거로 무용교수학습과정에서 핵심적인 목표, 내용과 방법에 대해 구체화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또한 해외 사례에서 무용을 전공한 교사가 지도하는 것과 달리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기관에서 움직임과 무용을 배우게 되는 국내 교육체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무용을 전공하지 않은 교육자라도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따른 움직임과 놀이를 숙지한 상태에서 무용을 지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제공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영유아 무용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다양한 교보재 및 학습도구를 활용하여 유아 및 놀이중심 신체운동·건강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소연(2019). 유아의 감성지능(EQ) 발달을 위한 한국무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교육부 보도자료(2019). 2019 개정 누리과정 확정·발표. 세종: 교육부.
- 김지영, 홍애령(2019a). 무용교육학(Dance Pedagogy)의 학문적 정체성 탐색: 시계열 관점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7(9), 439-450.
- 김지영, 홍애령(2019b). 미래 학교무용교육을 위한 정책 제도의 쟁점과 발전 전략. *한국스포츠키오학회지*, 26(4), 163-184.
- 윤혜선, 김예진(2016). 국내 유아 대상 통합적 예술교육 프로그램에서 무용의 적용에 관한 연구동향. *한국무용과학회지*, 33(4), 17-32.
- 윤혜선, 김예진(2018). 무용전공자가 경험한 유아무용지도 과정의 난점 분석을 통한 개선 방향 탐색. *한국무용과학회지*, 35(4), 43-60.
- 이윤구, 이소미(2020). 유아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의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 175-188.
- 이정미(2007). 발달에 적합한 실재에 대한 보육교사의 신념과 교사-영아 상호작용간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덕성여자대학교.
- 임동호, 이소미(2018). 시각자극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체육활동에 따른 유아의 운동능력과 주의 집중력의 차이. *디지털융복합연구*, 16(2), 415-420.
- 정영남(2007). 생태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 인식 및 자연물을 이용한 생태 유아 프로그램.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정재임(2019). 유아의 댄스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LMA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정주희, 윤혜선, 김예진(2016). 유아 무용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한국무용과학회지*, 33(1), 35-54.
- 채규남(2010). 동화극놀이를 활용한 유아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최경근, 이소미, 권재윤(2020). 영유아의 문화예술교육 동향과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제. *한국체육과학회지*, 29(3), 371-380.
- 홍애령(2017). 초등 무용교육자의 정체성과 수업 전문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2(4), 107-118.
- 홍애령(2019a). 초중등학교 체육교사의 표현활동 인식과 표현활동 교수전문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예술연구*, (23), 75-99.
- 홍애령(2019b).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영유아 무용교육의 연구동향 및 과제 탐색. *우리춤과 과학기술*, 47, 9-27.
- 홍애령(2020). 한국 무용교육의 역사적 흐름과 영역의 재검토: 교육무용 지향에서 큰 무용교육 지향으로. *한국스포츠키오학회지*, 27(4), 121-139.
- 홍애령, 김종희(2020). 2019 개정 누리과정 분석을 통한 유아·놀이중심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개념틀 연구. *한국예술연구*, (27), 343-365.
- Ailwood, J. (2003). Govern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through play. *Contemporary Issues in Early Childhood*, 4(3), 286-299.
- Faber, R. (2017). Dance and early childhood cognition: The Isadora effect. *Arts Education Policy Review*, 118(3), 172-182.
- Gestwicki, C. (1995).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 Curriculum and development in early education*. Albany, New York: Delmar Publishers.
- Green Gilbert, A., & Smith, H. P. (1992). *Creative dance for all ages: A conceptual approach*. Reston, VA: American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 National Dance Education Organization(2005). *Standards for dance in early childhood*. Bethesda, MD: National Dance Education Organization.
- NDEO 홈페이지. [www.ndeo.org](http://www.ndeo.org)
- Rakimahwati, R. (2014). Character development through dance learning in an early childhood setting. *Indonesi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tudies*, 3(2), 102-107.
- Wulandari, H., Agustin, M., Narawati, T., & Masunah, J. (2019, February). Learning model of creative dance for early childhood.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s and Design Education (ICADE 2018)* (pp. 188-191). Atlantis Press.

ABSTRACT

---

**Analysis of Dance Education Standards for the Development of Guidelines for Dance in Early Childhood: Focused on SLTDA and NCAS**

Aeryung Hong\* · Somi Lee\*\* Sang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urriculum, area, and contents of the existing early childhood dance education standards and to identif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style guidelines for dance in early childhood. For this study, the contents of early childhood dance education included in the 2005 Dance Education Standards and the 2014 National Core Arts Standards announced by the National Dance Education Organization of the United States (NDEO) were analyzed and FGI was conducted with five experts in early childhood dance educ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wo standards consist of four common processes: creating, performing, responding, and connecting, which include developmentally appropriate dance education considering students' physical, cognitive, and psychological levels and abilities at each age group. Educational content is suggested to be applicable to all dance genres and styles, and includes responding to various sensory stimuli (music, sound, vision, and touch), exploring basic locomotor movements, non-locomotor movements, and transforming them into one or more dance elements. Second, as implications for guideline development, segmentation, diversification and linkage of early childhood dance education by stage, suitability review of existing educational standards, development of teaching materials for guideline consumers, and consideration of safe and diverse classroom environments were proposed. Considering the above, it is requested to list in detail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velopmental stage of the early childhood period and to specify key goals, contents and methods in the teaching learning process based on thi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guidelines were needed to be provided to guide infants while familiarizing themselves with movements and play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stage of early childhood,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domestic education system, such as Nuri Curriculum.

**Key words** : early childhood, dance education, education standards, SLTDA, NCAS

---

논문투고일: 2021.03.04

논문심사일: 2021.03.30

심사완료일: 2021.04.13

---

\* Research Professor, Global Research Institute for Arts and Culture, Sangmyung University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Sangmyung University